

지역 소식통

고창군, '일손부족 해소  
원가절감' 홍고추 수매

고창군은 고추 수급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매기관인 해리농협과 (주)고창토토배기 유통에서 올해 생산되고 있는 홍고추에 대해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홍고추 수매기관과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당 200원/kg씩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매잔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창 관내 고추농가는 2888농가(725ha)로 홍고추 수매 잔여금은 고추 수확철 농촌 일손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고추 재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있어 농가 선호도가 높다.

또한, 군은 농산물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농업군이 다. 고추산업 육성을 위해 (사)고창고추연합회를 중심으로 내병계 종자와 고추전조기 지원과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견고 추 장터 운영 등 고창군 고추브랜드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도시농업 발전 이끌  
전문 강사 양성 박차

정읍시가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도시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21명의 도시농업 예비 전문 강사를 배출했다.

시는 2일 제2정읍시에서 '2022년 도시농업 관리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도시농업 관련 전문지식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도시농업 관리자 양성 교육은 도시 텃밭·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구현을 선도하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8월 2일까지 총 21회 9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 기반 조성, 토양의 이해, 작물생육과 환경, 텃밭 정원 만들기, 병해충관리, 치유농업의 이해, 친환경 농업 등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 견학을 병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공약사업 세부 이행 검토

이학수 정읍시장, 8개 분야 20개 사업 성공 추진... '시민 중심 으뜸 정읍' 만들어

정읍시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정책 여건과 행정환경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점검에 나섰다.

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조기 이행을 위한 공약사업 이행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항을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실천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학수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과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각 부서가 공약별 정책 목표와 사업의 재원 규모, 세부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정읍시는 일자리·경제 분야 11개 사업, 농업·농촌 분야 10개 사업, 보육·교육 분야 9개 사업, 문화·관광·체육 분야 13개 사업, 보건·복지 분야 11개 사업, 도시·교통·환경 분야 13개 사업, 청년·소상공인·지역발전 분야 6개 사업, 시민소통·행정 분야 7개 사업 등 총 8개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읍 재도약을 위해 시장방침에 맞게 분류·계획됐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시민 소통실

신설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 △기압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고사부리성 조기 복원 및 정비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복지망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시는 시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공감·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시민 소통실을 설치해 시정에 대한 건의와 각종 고충·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립, 서남권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 등 탄탄한 보육 기반을 조성해 요양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경관농업 1번지 전북 고창군이 아쉽게 진행된 경관지구 영상·사진 공모전 당선작이 공개됐다.

## '아름다운 경관1번지 고창'

경관지구 영상·사진 공모전 성료

'대한민국 경관농업 1번지' 전북 고창군이 아쉽게 진행된 '경관지구 영상·사진 공모전' 당선작이 공개됐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24일까지 작품 접수를 거쳐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영상부문과 사진부문 당선작을 공개했다.

영상 부문에선 심재국 작가의 '고창 노란물결로 물들다'가 금상을 차지했다. 작품은 봄날 고창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영상 등으로 촘촘하게 담아냈다. 이밖에 은상, 동상, 특별상이 선정됐다.

사진 부문 금상은 박성환 작가의 '고인돌엔 아침이 수상했다. 이른 봄날의 새벽녘 고창을 가로지르는 고인돌엔 물안개와 노란 유채꽃과의 조화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사진부문 은상 2명, 동상 4명, 가작 17명이 선정됐다.

고창군은 이번 당선작들을 지역 경관농업 홍보활동에 활용한다.

또 각종 행사와 전시회에서 고창자연 경관의 대표성, 역사성 및 장소성을 나타내는 자료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 곳곳을 찾아 영상·사진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창농촌 경관을 지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재난기본소득 신속한 지급준비 만전

고창군, 22일부터 지급예정

고창군이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재난기본소득(3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8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

고창군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30일 24시 기준으로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5만 3215명(2만 8773세대)이다. 신청기간은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다.

군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고 1가구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총 40만원, 4인 가구는 5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군은 추석 명절전 지급 완료로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을 위해 1~2주간 집중 신청·지급 기간과 방문신청시 혼잡방지를 위해 요일별 신청제(출생년도별 5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지급 행정서비스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고창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고창군은 2020년 1차, 2022년 3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급으로 전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어려운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김택술 유학자, 8월의 정읍 역사 인물 선정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이자 '후창집'을 저술한 유학자 김택술(1884-1954)이 이달의 정읍 역사 인물로 선정됐다.

7세에 수학을 시작해 15세 경에 사서삼경을 통달한 김택술은 1900년 성리학자 전우(田愚 1841-1922)를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의 대도를 배웠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점된 뒤로 망국의 한을 품어오던 중에 일제의 상사금을 거절했으며 큰아들을 일본인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려는 일제의 강요를 단호히 뿌리쳤다.

1925년에 동문인 오진영이 스승의 유지를 무시하고 총독의 허가를 얻어 문집을 발간할 때, 여러 문인의 선봉이 되어 그의 선생의 뜻을 저버린 죄를 성토했다.

이 때문에 일제로부터 배일당(排日黨)으로 지목되어 전주 감사국에 여러 번 호출을 당했고 일차 피랍되어 무수한 고문을 당했다.

1930년경 단발령과 창씨개명령(創氏改名令)에 불응해 감시 대상이 됐으며, 일제가 주는 배급은 받지 않고 솔잎과 감자로 연명했다.

왜적을 타도할 기회를 엿본다는 뜻으로 불망실(不望室)을 건립해 고절(高節)을 수습하고, 후학의 교육에 힘썼다.

김택술이 죽은 뒤 1964년에 문인과 유림들은 그의 도덕을 기념하기 위해 이광면 창동리에 창동서원을 건립해 향사했으며, 이 서원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8호로 지정됐다. 김택술의 저서로는 '후창집(後滄集)'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적·예술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선정해 재조명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정읍의 인문 역사적 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2022년 을지연습 대비 사전교육 실시

부안군은 지난 1일 군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열린공감의 날과 병행하여 을지연습을 대비한 전 공무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축소 시행됐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이에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연습장으로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전 시작제편성, 전시참설기구 운영, 비상소집 훈련 및 폭발·화재대응실 제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부안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군장비 및 안보사진 전시회, 방사능 측정장비 체험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처음으로 정상 실시되는 연습이 준비되어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